



광주세관, 중국산 녹용 2,000kg 밀수 검거

- 올에 들어 최대 규모, 광주세관 수사 확대 방침 -

10억원 상당의 중국산 녹용과 뱀 등을 밀수입한 일당 3명이 세관에 검거됐다.

광주본부세관은 5월 27일 “중국산 뱀 2천500kg과 녹용 2천kg 등 시가 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황모(42.충북 옥천군), 이모(41)씨 등 3명을 긴급 체포했다”고 밝혔다.

광주세관에 따르면 황씨 등은 밀수총책과 운반,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지난 5월 21일 평택항을 통해 이들 밀수품을 반입, 국내에 판매하려한 혐의다.

세관은 여름철을 앞두고 녹용과 뱀 등 보신용품 반입이 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이들 밀수조직의 통화내용과 계좌 등을 추적, 충북 옥천에서 밀수품을 차량에 옮겨싣던 황씨 등을 검거했다.

세관은 또 이들 밀수품을 중국 현지에서 수집, 선적한 현지 운반책 중국 조선족 김모(48.여)씨 등 2명 수배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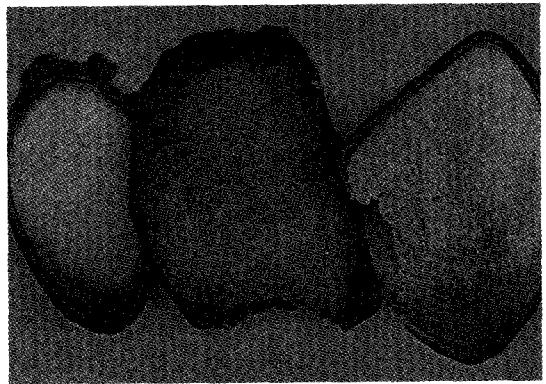
이들은 뱀과 녹용을 컨테이너에 싣고 옥돌을 수입하는 것 처럼 정상적인 수입품으로 위장, 평택항으로 입항한 뒤 반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세관은 이들이 옥천 창고에서 현지 운반책에게 넘겨주던 녹용 1.2t을 압수하고 나머지 중국산 뱀 등에 대한 판매처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.

광주본부세관 양채열 조사감시과장은 “이번에 적발된 규모는 올들어 보신용품 밀수에 있어 최대 규모다”며 “국내 판매책 검거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”

고 밝혔다.

광주세관은 지난해 초에도 중국산 녹용 2,000kg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을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검거한 바 있다. **한국양육**



<사진은 러시아(위)와 뉴질랜드(아래) 수입 녹용>